

## 결핵균 등 내성균 천국, 약물 오·남용 사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천명 중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한다. 이는 OECD 회원국가의 평균치 21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약물남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또 97년도 의료보험 환자중 병·의원에서 58.9%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의 70~80%가 항생제 남용으로 페니실린에 내성을 보였는데 이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약물남용은 항생제 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처방 없이 자가처방으로 약을 구입하며, 자가처방의 절반은 감기약을 구입하는데 이 경우 부적절한 처방이 문제된다. 더구나 감기약은 1가지만으로도 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은데 '판피린과 콘벡 600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몰약과 알약을 동시에 주문한다. 이와 같은 약의 중복사용은 약물의 남용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

### ●감기약을 오·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은?

거의 모든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은 현기증, 졸음, 운동신경의 둔화, 주의력 산만 등을 유발하므로 과다복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운전 중이나 기계조작시에 감기약 복용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환각을 목적으로 러미라나 루비킹과 같은 구하기 쉬운 기침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독이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얼굴이 붉어진다. 또 목이 마르며 삼키기 힘들어지고 위장장애와 혈압상승, 고열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했을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시 부작용은 몸이 비대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며, 골다공증의 발생이 증가하고, 엉덩이 관절의 괴사, 고혈압, 당뇨, 출혈 경향의 증가, 백내장, 녹내장, 위궤양, 위장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스테로이드 제제와 피부연고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부연고에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 제제)가 함유되어 있다.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주로 증상경감을 위해 사용되지만 부작용이 심각한 물질이다.

피부에 대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의 2차 감염과 모세혈관확장, 그리고 피부위축 등이다. 피부의 2차감염은 부신피질호르몬에 의해 우리 인체의 면역반응이 저지되는 사이에 세균이나 곰팡이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피부질환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스테로이드 제제와 안약

스테로이드 제제가 함유된 약품중 피부부연고제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안약이다. 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미용용 안약과 안질환용 안약으로 나누어진다. 눈곱이 낀다거나, 충혈되었을때 사용하는 안질환용 안약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위해 혈관수축제제가 함유되어 있는 미용용 안약을 사용하게 되면, 안약을 넣은 당장에는 시원한 느낌과 함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시야가 뚜렷해지지만, 쉽게 습관성이 되어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된다.

#### ●항생제를 오·남용 했을 때 부작용?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균주 또한 증가하여 치료효과가 점점 적어지며, 더욱이 내성균주의 전파에 의하여 항생제를 투약한 환자 이외에 환자 가족이나 병원방문객 등 사회전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내성균이라는 것은 특정한 항생물질에 반응하지 않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균이다. 내성균이 생기는 원인은 첫째 감염원이 된 세균을 정확하게 파괴시키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항생제의 사용량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서 내성균이 생기게 된다. 항생제의 사용량은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항생제의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핏속의 항생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내성균이 생기게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은 처음부터 고칠 약이 없어 고생하게 된다. 특히 성병이나 결핵균의 경우 그러한 내성균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항생제 중 테트라 사이클린은 우유 및 유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킬레이트화합물을 만드는 성질이 있어, 항생제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위벽을 직접 공격하는 성격이 있다. 위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항생제와 위보호제를 함께 복용하고, 가급적 식후 30분에 복용한다.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제공한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내용을 발췌  
하여 게재한 것입니다.